

## 이동형 X선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관련법 개정없이 시정 요구 부당” 항의 치협, 인체 안전규정 확정 때까지 구입 신중 당부

현재 상당수 치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동형 X선장치의 경우도 방사선 방어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정부 지침과 관련, 치협은 명확한 인체안전규정 및 관련법령 개정 없이 시정요구는 부당하다며 강력 항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업무지침을 통해 임프란트 시술 등 일부 치과영역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X선장치가 식약청 허가를 받으면서 치과에서 상시적 노출로 인한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에게 방사선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방사선 피폭 방지를 위해 방어용 앞치마 및 방어 칸막이 등 별도의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출 것을 밝혔다.

현행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중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르면 수술실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이동형 X선장치는 별도의 방사선 방어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치과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X선장치의 경우 제품의 구조 및 특성상 치과 일부영역인 신경치료, 임프란트 시술 등의 진단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시적 노출로 인해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에게 방사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 별도의 방사선 방어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식약청이 이동형 X선장치의 제조허가 당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어떠한 근거나 단서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품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위해 정도의 명확한 기준없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력 주장했다.

치협은 2차에 걸쳐 이에 대한 부당성 및 확인절차를 갖춰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복지부와 업무 협의 중이다.

우중윤 자재이사는 "이미 상당수 치과병·의원에서 비싼 제품가를 부담하며 이동형 X선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방사선 방어칸막이 등 별도의 방사선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통해 방사선 피폭량 검사 등을 통한 어떤 명확한 근거나 단서조항을 마련, 회원들의 피해와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이사는 또 "복지부 및 식약청과 업무협의 중이므로 새로 이동형 X선장치를 구입·사용하고자 하는 치과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명확히 확정될 때까지 구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치협이 잠정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동형'을 표방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조·수입 업체는 57개사이며 이중 12월 14일 현재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로 제조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는 1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 관계자는 "일부 관련 업체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로 허가받고 '이동형'을 표방하며 홍보한 것도 회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1000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잠정 조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 2005년 전공의 정원 인턴 301명 · 레지던트 284명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전공의 정원과 관련 인턴 301명, 레지던트 284명을 승인했다. 또 인턴 수련 치과병원으로 34개 치과병원을,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으로 43개 치과병원을 승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이같이 지난 12월 승인했다.

인턴 정원은 2004년도 293명에 비해 8명(2.7%)이 증가한 301명으로 확정됐으며, 2004년도 26개에 비해 8개(30.8%)가 증가한 34개 치과병원이 인턴 수련 치과병원으로 지정돼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등 10개 치과병원이 신규로 인턴 수련 치과병원으로 지정됐다. 2004년도 인턴 수련 치과병원인 을지병원과 미르치과병원은 기준미달로 제외됐다.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과 관련 2개과 이상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은 28개,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은 1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레지던트 정원은 총 284명으로 각 과별로는 구강악안면외과 65명, 치과보철과 50명, 치과교정과 44명, 치주과 38명, 치과보존과 36명, 소아치과 33명, 구강내과 10명, 구강방사선과 6명, 구강병리과 1명, 예방치과 1명 등이다.

전공의 정기모집과 관련 인턴은 2005년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 28일 면접을 거쳐 31일 합격자를 발표하며, 레지던트는 지난 12월 10일 원서 접수를 마치고 12월 21일 필기시험을 거쳐 12월 23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후기모집의 경우 인턴은 2005년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원서를 접수, 3일 면접을 거쳐 4일 합격자를 발표하며, 레지던트는 지난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치고 12월 30일 필기시험을 거쳐 31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 노인틀니급여화 내년 실시 막았다 시민단체 강력 요구...치협 강력 저지 건보수가 2.99%·보험료 2.38% 인상, 건정심 결정

시민 단체의 노인틀니보험화 시도가 치협의 강력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또 내년도 건강보험수가가 2.99%오르고 보험료는 2.3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일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수가 인상률을 2.99% 인상하고 ▲의과 의원만 초·재진료를 2% 상향조정하며 ▲보험료는 2.38% 올리는 것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건정심 참여 시민단체가 노인틀니 급여화를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했으나 일단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치협은 이날 수가인상안 보다도 내년도 노인틀니 급여화 실시를 막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 결국 복지부, 시민단체, 치협 등 의료계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내년에 착수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노인틀니 보험화 파문은 일단 진정됐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노인틀니 급여화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치협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시민단체의 급여확대 요구액 대로 1조5천억원을 매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투입, 환자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급여확대규모는 역대 최대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보험 항목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MRI(자기공명영상) 특정 암 검사 본인부담 경감 ▲진료비는 책정해두되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100/100 전액 부담' 및 치료재의 환자 일부 부담으로 전환이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산전검사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영유아 예방접종과 치아우식증 예방, 저소득 독거노인 만성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면제, 한방제재 급여확대 등도 보험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건정심 치협 대표로 참석한 조기영 보험이사는 "이번 건정심에서 치협 입장으로 볼 때 수가인상보다는 노인틀니 급여화의 내년 실시를 막는 것이 시급했다. 치협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었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협은 자칫 내년도 건강보험수가가 올해보다도 인하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단체로서 보건단체들을 단합시키고 복지부, 공단과 끈임 없이 대화를 시도, 수가를 2.99%로 인상시킨 점과 일단 내년부터 실시될 뻔 했던 노인틀니급여화를 저지한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

## 치과계 '정론직필' 역할 다한다, 치의신보 창간 38주년 기념식 올해의 치과인상' 윤흥렬 회장 영예

치과계 언론사상 처음으로 제정돼 올해를 빛낸 치과인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의 첫 영예는 윤흥렬 세계치과의사연맹 회장에게로 돌아갔다. 지난 38년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매년 발전을 거듭해 온 보건의료계 최대 정론지 치의신보가 창간 38주년 기념식 및 2004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지난 12월 15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했다.

1부 창간기념 행사와 2부 2004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재규 협회장,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문경태 기획관리실 실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열린우리당) 등 정·관계 및 치과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정재규 협회장은 "치의신보는 치과계 전반 및 해외 치의학 동향, 정부 및 협회의 구강보건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치과계의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 협회가 보건의약계 리더로 자리매김 하는데 주요한 공로를 했다"고 치하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경태 기획관리 실장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치의신보는 그동안 무료 노인틀니 사업, 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대국민 봉사 사업을 일선에서 독려

하고 합리적 모델을 제시,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분야 정책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 기능을 수행, 치과계는 물론 보건의료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정론직필의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은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 등을 정재규 협회장과 치의신보 등을 통해 귀담아 듣고 있다"며 "보건의료관련 입법 활동 및 정부정책과정에서 이를 조언해온 치의신보의 노고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신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석균, 김지학 전임 편집인에 대한 공로패 시상과 치의신보의 장수 애독칼럼인 릴레이 수필 1000회를 기념하는 기념패가 수필 1호 집필자인 최원덕 전 공보이사와 1000호 집필자인 김영훈 대한치과의사문인회 회장에게 각각 수여됐다.

이어 열린 2부 '2004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에서는 윤흥렬 세계치과의사연맹 회장이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의신보가 창간 38주년을 기념해 치과계 언론사상 처음으로 제정한 '올해의 치과인상'은 신성치과기재 주식회사의 후원으로 한해 동안 국내외 사회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 수여하는 상으로 상금 1천만 원이 주어진다.